

# 디자이너 연구의 과제와 방법: 왜, 무엇을, 어떻게?

## The Purpose and Method of Studying Design History: Why, What, and How?

최범(한국디자인사연구소)

Choi Bum (Korea Design History Institute)

1. 왜: 디자이너 연구의 필요성
2. 무엇을: 디자이너 연구의 목적
3. 어떻게: 디자이너 연구의 방법
  - 3.1. 역사는 해석이다
  - 3.2. 제도의 역사를 넘어서야 한다
  - 3.3. 단순한 진보 사관을 지양해야 한다
  - 3.4. 연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4. 한국 디자인사의 대상
  - 4.1. 서양 디자인사와 세계 디자인사
  - 4.2. 서양 디자인사와 한국 디자인사
5. 디자이너 연구의 의의

이 글은 기존에 발표한 다음 두 편의 원고를 재구성한 것이다.

- 최범,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전제」, 『디자인학 연구』, Vol.17 No.4, (한국디자인학회, 2004), pp.347-352
- 최범, 「서양 디자인사를 보는 눈」, 『최범의 서양 디자인사』, (안그라픽스, 2018), pp.190-203

디자인사 연구는 전문 분야로서의 사회적 인정이라는 외적 필요성과 디자인 행위와 실천을 시간 속에서 이해하는 역사의식이라는 내적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요청된다. 역사 연구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지향하지만 사실 역사 연구에서 절대적인 객관성이란 없다. 어차피 역사 연구는 어느 정도의 주관성을 피할 수 없고, 근대 역사학 정초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사실과 허구(픽션)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역사의 기능은 크게 '정당화'와 '성찰'로 볼 수 있는데, 한국 디자인사 연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디자인사와의 관계 설정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 디자인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알려진 서양 디자인사와의 관계이다. 한국 디자인사와 서양 디자인사는 다르지만, 그것을 배타적이거나 대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둘은 동일한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서양 디자인사를 적절히 상대화하는 관계 속에서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인식이 더욱 뚜렷해진다. 나아가 한국 디자인사 연구는 한국 디자인 담론의 본격적인 출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한국 디자인이 담론과 실천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정당화, 성찰, 서양 디자인사, 한국 디자인사, 디자인 담론

A study of design history is required in two dimensions: the external need for social recognition as a specialized field and the internal need for a sense of history to understand design behaviors and practices over the years. A study of history is oriented toward objectivity based on facts, but in truth there is no absolute objectivity in historical research. After all, a study of history cannot avoid some subjectivity, and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experts in modern history studies, the truth is located somewhere between the facts and fiction, and not necessarily science alone. The function of history can be seen largely through the lens of justification and reflection, and a study of Korean design history is no different. What is important in the study of Korean design history is the 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with world design history. To be specific, it is a relationship with Western design history, which seemingly represents the design history of the world. Korea and the West's design history are different, but they should not be seen as mutually exclusive or confrontational. The two are neither the same nor completely separate. Instead, the perception surrounding Korean design history becomes more pronounced within a relationship that correctly relativizes Western design history. Furthermore, the study of Korean design history refers to the full-fledged emergence of Korean design discourse, creating an opportunity

for Korean design to move forward with two different driving forces: discourses and practices.

### Key Words

Justification, Reflection, History of Western Design, History of Korean Design, Design Discourse

#### 1. 왜: 디자인사 연구의 필요성

디자인사 연구는 왜 필요한가.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그 역사도 짧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연혁을 연구할 필요가 생긴 것일까. 물론 한 분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고유의 역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자연에 역사가 없듯이, 어느 분야에 역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자연에 가깝다는 말도 된다. 인간의 문화라면 당연히 역사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역사와 역사 연구는 다르다. 과거의 사실 그 자체로서의 역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기억, 기록, 연구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기 때문이다.

한 분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시적 조건과 함께 통시적 조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공시적 조건이 제도과 전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면 통시적 조건은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사회적 좌표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역사는 해당 분야가 통시적인 조건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바탕이 된다.

이것은 일단 디자인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외적 차원이고, 그 이전에, 그와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디자인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내적 차원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디자인의 역사 의식이다. 그러니까 디자인사 연구의 내적 필요성은 디자인의 역사 의식 자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디자인의 역사 의식이라고 하니가 뭔가 엄청난 것 같지만 역사를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디자인의 역사 의식이란, 다름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행위와 실천을 시간 속에 이해하는 감각이다. 역사 의식은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다. 나는 《월간 디자인》지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소 무겁게 지적한 바 있다.

“아직 우리는 한국 디자인의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 누구도 지나간 우리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연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디자인 역사는 어두운 침묵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침묵이 문제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침묵과 간과의 시간 동안에도 역사는 흘러가지만 진정 의미 있는 역사는 정지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역사적 문제라는 것이 단지 지나간 과거의 사실들을 해명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 불투명한 역사적 인식 속에 방치된 문제들은 바로 지금 현실에 작용하면서 역사적 발전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다.”<sup>1)</sup>

1 최범, 「디자인과 역사 의식」, 《월간 디자인》 8월호.

이렇게 디자인사 연구의 내적 필요성으로서 역사의식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디자인사 연구에는, 사회적 인정을 위한 외적 필요성과 함께 디자인 행위와 실천을 시간 속에서 사고하기 위한 내적 필요성이 함께 요청됨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외적·내적 조건의 합일을 통해서 왜 디자인사 연구를 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자 한다.

## 2. 무엇을: 디자인사 연구의 목적

디자인사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디자인사 연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어느 분야든 자신의 역사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접근과 연구마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미묘한 물건이며 매우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자인 분야가 자신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것을 현재적 실천을 넘어서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디자인의 발전 과정에서 볼 때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주로 현재적인 실천과 이해관계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디자인 역시 다른 모든 인간 활동과 마찬가지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실천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디자인사에 관한 관심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너무나도 당연한 자각이지만, 한국 디자인계의 관성으로 보자면 매우 소중한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 연구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지향한다. 그러나 실제 역사 연구가 반드시 객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 연구의 방법에서든 결과에서든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사실도 허구도 아닌, 사실과 허구의 중간쯤에 자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부 포스트 모더니스트 역사학자들은 역사와 문학을 동일시한다. 역사학자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는 역사 서술이 일종의 ‘언어적 인공물(Verbal Artifacts)’이며, 그것을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야기체로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픽션(Fiction)’이라고 본다.<sup>2)</sup>

그것은 문학이 비록 전체로서는 허구일지라도 서술의 기본적인 재료는 대체로 현실의 것을 취하기 마련인 것처럼, 역사도 기본적인 재료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을 해석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가공된 것이라는 관점이다. 역사가 과학인가 아니면 문학과 같은 허구인가 하는 문제는 역사학의 본질적인 쟁점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간단히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과학을 지향하는 문학이라고 보면 어떨까 하는 정도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본다.

---

(디자인하우스, 1995), pp.185-186

---

2 안병직 외, 「언어로의 전환과 새로운 지성사」,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1998), pp.250-257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역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즉 ‘정당화(Justification)’와 ‘성찰(Reflection)’이다. 정당화란 역사적 궤적에 인과성을 부여함으로써 현재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에 반해 성찰은 역사란 언제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선택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현재가 반드시 필연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정당화가 주로 역사를 믿도록 만든다면 성찰은 역사를 의심하도록 한다. 대체로 전자가 보수적이라면 후자는 진보적이다. 그런데 역사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필요하다. 역사는 기록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며, 또 성찰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정당화로서의 역사는 보존적 욕구를 반영하며 성찰로서의 역사는 도전적 욕망을 자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의 이 두 가지 기능이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사실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것은 매우 실천적인 함의를 가진다. 그것은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향후 한국 디자인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역사란 현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 일정한 거리를 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사 연구는 역사에 대한 소박한 생각이나 겸손함과는 달리 매우 실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현재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좀 더 급진적으로 말하자면

역사란 과거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과거를 근거로 한 현재의 판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아무튼 문제를 다시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 맞추어 보자. 한국 디자인사 연구의 경우에도 정당화와 성찰이라는 역사의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작용하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먼저 감지되는 것은 정당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한,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 디자인계이지만 역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은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대학교수 출신인 1세대 디자이너들이 은퇴하면서 개인 작품집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러한 기능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3)</sup> 원래 정당화 기능이란 한 체제의 중심을 이루는 주류에 의해서 수행되기 마련이며, 역사 연구의 일차적인 계기는 대체로 그렇게 제공된다.

그에 반해 성찰적 기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찰적 기능이란 역사의 보수적 기능을 넘어서 보다 혁신적인 해석을 지향하는 만큼 한결 비교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성찰적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연구와 기술이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혹여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앞서는 경우 그저 의식을 환기하거나 당위적인 주장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접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한국

3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을 만든 것은 그러한 목적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디자인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하에 역사의 성찰적 기능을 형성해가는 접근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한국 디자인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당성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질문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성찰적 접근은 한국 디자인을 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할 뿐 아니라,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균형감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정당화 기능이든 성찰적 기능이든 한국 디자인사 연구는 이제야 출발점에 서 있다. 돌아보면 20세기 후반 이후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는 디자인 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기존의 제도와 영역이 흔들려 왔다. 디자인은 나름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왔고 어쩌면 그러한 변화에 앞장 서 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변화들이 자신을 확인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욱 추동했던 것도 사실이다. 변화 속에서 디자인은 자신의 궤적을 확인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관심 역시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 요구되는 실천적 과제도 그로부터 그리 멀리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3. 어떻게: 디자인사 연구의 방법

앞서 언급한 관점에 근거하여 향후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전체를 몇 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디자인 공동체가 자신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식 내지는 합의사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열거해 보았다. 이러한 점점을 통해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조금이라도 더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되기를 바란다.

#### 3.1. 역사는 해석이다

역사 연구는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역사적 사실도 그 자체로는 역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학을 과학으로 정초하고자 한 독일의 레오폴드 폰 랑케는 “역사 그 자체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라고 했지만, 역사 자체가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는 직접 말할 수 없으며 언제나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 의미화될 뿐이다. 역사는 최종적으로 사실의 체계가 아니라 의미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 연구의 재료(史實, 史料)와 그 결과물(기술된 역사)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디자인계에서는 아직 이처럼 기본적인 사실이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역사가 해석이라는 적극적 행위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 사료의 제시를 곧 역사 연구로 착각하는 경향이 만연하다. 한국 디자인사에 관한 관심이 생겨나면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디자인과 관련된 사료가 수집되고 지면과 전시회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흔히 ‘한국 디자인 00년’식으로 제시되는 내용이 그러한데, 사료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의의는 매우 크지만 마치 그것 자체를 역사 연구인 것처럼 간주한다면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 연구에서 사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다시 말하건대 사료의 제시와 역사 연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역사란 역사적 사실(사료)을 대상으로 일정한 관점(사관)에 따라 조직·재구성한 이야기(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역사 연구가 해석적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물이해는 다른 대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연표가 좋은 예이다. 한국 디자인계는 연표 만들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 흔히 디자인 단체나 잡지에서 창립 00주년을 맞으면 으레 연표를 만들곤 한다. 아마도 체계적으로 기술된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연표를 손쉬운 대체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간략한 형식일지라도 연표도 엄연한 역사 기술의 일종이며 일정한 관점에 따라 배열되어야 한다. 연표란 비유하자면 점(點)으로 표현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표상의 점들은 결코 무심한 기하학적 위치일 수가 없다. 점과 점 사이에는 역사적 사건 간의 연관 관계와 긴장이 발생하면서 하나의 전체상을 형성하기 마련이다. 아마도 이러한 것이 연표가 보여주는 역사성일 것이다.

역사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연표만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예를 들어 1894년의 갑오개혁은 일반사 못지않게 디자인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그것은 제도적 근대화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정치적 개혁에 이어지는 단발령과 복식 개혁으로 인해 향후 한국 시각문화의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사 항목에 갑오개혁이 나온다면 적어도 디자인사 항목에서는 단발령과 복식 개혁이 마주하고 자리 잡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1970년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사적 사건은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일 수도 있지만, 한국 디자인에 미친 영향으로 볼 때 어찌면 새마을운동의 시작이 더 앞자리를 차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연표의 효율성을 나름대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를 단순히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재현하는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디자인계에서 만들어온 연표들을 보면 주로 외국의 틀을 그대로 빌려오거나 정치·경제·사회 등의 분야로부터 가져와 적당히 짜깁기 한 것일 뿐, 한국 디자인사의 독자적인 시각을 갖추지 못한 것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디자인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디자인사의 경우에도 그것을 보는 우리 나름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서양 디자인사라 하더라도 서양인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표 역시도 나름대로의 역사 연구 결과 가능한 것이지, 진공의 상태에서 무중력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에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란 없으며 모든 것은 해석된 사실일 뿐이다. 개략적인 연표가 결코 역사 연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 또한 역사 연구의 노력이 낳은 산물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 디자인사 연구는 단순히 사료를 제시하거나 연표를 나열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역사가 일종의 해석 행위라는 자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2. 제도의 역사를 넘어서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디자인의 역사는 디자인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디자인을 좁은 제도(교육, 전문직, 생산 등)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의 역사는 제도의 역사는 물론이고 디자인의 사회사와 문화사를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 디자인사 연구들은 대체로 디자인 제도의 역사에 집중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접근이든 다른 방식의 접근이든 간에 한국 디자인사에 관한 연구는 아직 드문 편이지만, 그나마도 제도 중심의 접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제도의 역사도 디자인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거기에도 생각해야 할 문제는 많다. 어떤 영역이든지 그 영역의 총체가 압축적으로 표현된 것이 제도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제도는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대신하는 부분, 즉 환유적인 가치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사라 하더라도 피상적인 접근보다는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거나 거꾸로 규정하는 다양한 관계를 파고 들어가는 분석적·징후적 독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사만으로는 역사를 충분히 재현할 수 없다. 그것은 곧잘 ‘찾잔 속의 사실’을 ‘찾집의 현실’로 읽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디자인은 매우 폭넓은 사회문화적 과정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디자인사 연구에도 이러한 시각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동안 근대 또는 탈근대 역사학에서 발전시켜온 사회사, 일상사, 문화사, 미시사, 심성사, 지성사 등 다양한 역사 연구의 방법과 패러다임을 디자인사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디자인사가 디자인 제도사로 수축되고 급기야 공식사에 함몰되어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 3.3. 단순한 진보 사관을 지양해야 한다

디자인의 역사를 제도 중심으로 보는 것은 곧 사관(史觀)의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 과연 역사가 발전하는가 하는 것은 역사학의 가장 근본적 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진보 사관(Progressive History)은 이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한다. 어떤 제도가 가장 경직되고 모순된 상태를 가리켜 흔히 관료화라고 하듯이, 진보 사관은 역사의 관료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 사관은 역사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한다고 보는 사관이다. 그러자면 당연히 목적을 설정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목적 사관(Teleological History)이라고도 부르며, 역사의 진행을 직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선형 사관(Linear History)이라고도 부른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많지 않은 한국 디자인사에 관한 기술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월간 디자인》에 ‘한국 디자인 100년사’를 연재한 박암중은 한국 디자인사의 시기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다.<sup>4)</sup>

초창기(개화기-1945)  
 혼란기(1946-65)  
 육성기(1966-75)  
 성장기(1976-87)  
 도약기(1988-)

한편 김민수는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sup>5)</sup>

전조기(1910-45)  
 여명기(1945-59)  
 육성기(1960-69)  
 성장기(1970-87)  
 토착기(1988-)

박암중과 김민수의 한국 디자인사 시기 구분은 매우 유사한데, 모두 진보의 관점에서 디자인사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에서 시기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의 모델에서 개화, 식민지, 해방, 전쟁과 같은 일반사적 기준과 디자인 교육, 진흥 정책, 세계화 등 한국 디자인계 성장사의 혼합이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러한 모델이, 한국 디자인계에서는 다른 모델을 생각할 수 없을

4 박암중, 「한국 디자인사 100년을 시작하며」, 《월간 디자인》 8월호, (디자인하우스, 1995), p.117  
 5 김민수, 「문화적 정체성을 향하여」, 《월간 디자인네트》 11월호, (디자인네트, 1997), p.95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각 시기의 설정 자체가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일단 이것은 논외로 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진보 사관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역사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며, 그렇게 보면 결국 어느 한 시기란 다음 시기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역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변화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사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사실로 바뀔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변화에 인과성을 부여하며 나아가 하나의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로의 변화를 발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것일까. 역사의 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과연 역사 허무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간단하지 않은 역사철학적인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물론 역사에서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많은 경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단순한 수준에서 복잡한 수준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발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복잡한 것이 반드시 단순한 것보다 발전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가치의 문제는 결국 세계관의 문제이며 사관의 문제로 직결된다.

말했다시피 진보 사관은 역사를 목적론적으로 본다. 역사가 마치 최고, 완성, 통일

등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반드시 역사가 어떤 섭리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인식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신학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목적론적인 역사관은 역사를 다른 것과의 유비를 통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밭아-성장’처럼 식물의 성장에서 가져온 유기체적 비유나, 미국의 경제학자 월터 로스토(Walt Whitman Rostow)가 경제 발전 단계설에서 사용한 것처럼 ‘도약(Take-off)’ 같은 항공술적인 비유를 들기도 한다. 과연 역사가 식물의 성장과 같은 것인지 또는 비행기처럼 날아오르는 것인지는 정말 생각해볼 문제이다.

물론 역사의 발전을 생성-소멸과 같이 유기체의 삶에 비유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있어온 오래된 사고방식이기는 하다. 그러나 개체의 삶이 아닌, 역사라는 집단적 삶의 과정에 이러한 비유를 적용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역사 인식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이미 성장과 도약과 토착화가 이루어진 한국 디자인사에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디자인사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영원한 천년왕국일까, 아니면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말처럼 ‘역사의 종말’일까. 그도 아니면 IMF 사태를 계기로 다시 쇠퇴했다고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진보 사관은 역사를 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는 점에서 현재의 체제를 긍정하는 보수적 기능을 하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진보 사관이

제도 중심, 양적 성장 중심의 접근을 보여주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아무튼 이러한 진보 사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디자인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3.4. 연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자료와 연구자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분류·보존 작업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연구할 연구자가 있어야 한다. 전자는 주로 물질적인 기반에 속하고 후자는 제도적·인적 기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을 연결하고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면 더욱 더 좋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질적 기반을 위해서는 각종 디자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과 아카이브를 설립하여야 한다. 풍부한 자료가 없다면 역사 연구는 상상력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자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역사 연구자는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투철한 역사의식에 바탕을 둔 인내심과 열정이 요구된다. 당장은 기존의 디자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 관심을 가진 자발적 연구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양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한국

디자인 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어도 대학원 과정 정도에서는 디자인사 전공 개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데 디자인계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마 한국 디자인계에 쏟아지는 연간 예산의 백 분의 일만 이런 부분에 사용되더라도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한국 디자인사 연구는 몇몇 개별적인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한국 디자인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토대도 마련하기 힘들 것이다.

#### 4. 한국 디자인사의 대상

##### 4.1. 서양 디자인사와 세계 디자인사

서양 디자인사와 세계 디자인사는 다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서양 디자인사가 곧 세계 디자인사를 의미하고, 세계 디자인사인 양 행세하고 있다. 서양 디자인사가 곧 세계 디자인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근대세계에서 서양이 세계를 대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양 디자인사가 곧 세계 디자인사일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서양 디자인사가 곧 세계 디자인사는 아니라는 지적만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연 세계 디자인사가 서술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학문으로서의 디자인사학은

서양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sup>6)</sup>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디자인 역사가 사실로서는 존재하겠지만, 그것들이 모두 제대로 기록되거나 연구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튼 현재로는 기록과 연구로서의 디자인사, 즉 학문으로서의 디자인사는 서양에서밖에 가능하지 않다. 디자인이라는 현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은 현재 서양 이외에는 없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세계 디자인사가 실제로 서양에서 쓰이고 있기도 하다.<sup>7)</sup>

세계 디자인사는 그렇다고 하고, 예컨대 서양 디자인사에 대응하는 통합된 동양 디자인사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역시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이라는 것 자체가 서양의 대립항으로 설정된 것인지 하나의 지리적, 문화적 실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양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정도가 현실적으로 설정 가능한 지역적 범위일 텐데, 실은 이조차도 하나의 묶음으로 다루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동양 디자인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양 디자인사를 상대화시켜서 이야기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라고 보아야 하며, 하나의 서양 디자인사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동양 디자인사가 실제로 있다고 믿어서는

6 현재 디자인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영국이다. 영국에는 '디자인사학회(Design History Society)'가 있다. 물론 이외의 몇몇 나라에도 디자인사학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존재감이 약한 편이다.

7 미국의 디자인 이론가인 빅터 마굴린이 세계 디자인사를 서술한 바 있다. Victor Margolin, *World History of Design*, (Chicago: Bloomsbury USA Academic, 2015)

곤란할 것이다.<sup>8)</sup> 그러면 결국 서양 디자인사가 아닌 디자인사로써 서양 이외의 제한적인 지역 디자인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디자인사나 한국 디자인사 같은 것 말이다.

#### 4.2. 서양 디자인사와 한국 디자인사

서양 디자인사는 한국에서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여기에서 관철이란 서양 디자인사가 곧 한국 디자인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서양 디자인사가 한국 디자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보다는 서양 디자인사가 한국 디자인사에 하나의 참조점으로서 보편의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 디자인사와 한국 디자인사는 같은가 다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기준과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보편과 특수 관계 맺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의 근대가 서양의 근대와 중심-주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의 근대는 서양의 근대를 기준으로 달성-미달이라는 관점에서 점수가 매겨질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말해준다. 이것이 한국 근대의 식민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서양 디자인사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디자인사는 열등한 것, 미달된 것으로 인식된다.

8 얼마 전 영국의 블룸스베리 출판사에서 『동아시아 디자인 백과사전』이 최초로 출간되었다. Haruhiko Fujita & Christina Guth (ed.), *Encyclopedia of East Asian Design*,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Plc, 2020)

이에 대한 반발은, 정반대로 서양 디자인사적인 기준을 배척하고 오로지 우리만의 독자적인 디자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수주의적 관점으로의 탈주이다. 하지만 한국 디자인사를 오로지 서양 디자인사를 기준으로 그에 미달하네 마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서양 디자인사의 엄연한 지배적 위상을 부정하고 ‘우리만의’ 디자인사 운운하는 것도 생각과는 달리 주체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인 태도가 주체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지만, 타자를 무시하고 우리만의 기준을 주장하는 것도 결코 생각처럼 주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물 안 개구리를 자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독립은 고립이 아니다. 독립은 고립이기는커녕 철저히 타자와 교섭하는 가운데 주체성을 찾아가는 개방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양 디자인사와 한국 디자인사의 관계는 그러한 교섭과 작용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 디자인사가 아직 서양 디자인사를 타자화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뭐라고 말하든 간에 실제로는) 절대적 보편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헤겔이 말했듯이 자기의식은 곧 타자의식이다. 자신을 타자로 상대화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 디자인을 무조건 숭배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국수주의적인 폐쇄성에 빠져버리는 한국 디자인은, 바로 그러한 타자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의식도 부재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 디자인사를 서양 디자인사로, 즉 타자의 역사로 본다는 것은 진정한 한국 디자인사, 즉 자기 역사 인식의 출발점을 이룬다. 그렇게 먼저 타자의

역사로서 서양 디자인사를 바라보고, 다시 그러한 타자의 역사로서의 서양 디자인사를 기준으로 한국 디자인사를 타자화하여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자의식에 의해 매개된 자기의식으로서의 한국 디자인사가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양 디자인사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한국 디자인사에서 서양 디자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무슨 보편사여서가 아니라, 서양 디자인사에 대한 인식이 곧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을 이룬다는 점에 있다. 서양 디자인사의 의의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서양 디자인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서양 디자인사가 한국 디자인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서양 디자인사를 통해서, 즉 타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한국 디자인사는 세계 디자인사에서 보면 작은 부분이 지나지 않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 디자인사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한국 디자인사를, 그러한 세계 디자인사의 지형 속에 위치시키면서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한국 디자인사를 잘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 5. 디자인사 연구의 의의

디자인사 연구는 한국 디자인에 역사

연구라는 분야가 단지 하나 추가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 디자인에 본격적으로 담론이 등장함을 의미한다. 디자인 담론은 디자인 역사, 이론, 비평으로 이루어진다.<sup>9)</sup> 역사는 통시적 담론, 이론은 공시적 담론, 비평은 평가적 담론이다. 이 중에서도 통시적 담론인 역사 연구가 디자인 담론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는 모든 담론은 존재하는 현실에 관한 물음에서 시작되고, 그것은 곧 존재하는 현실의 기원에 관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음에서 가장 먼저 던져지는 것은 역사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 디자인은 담론 없는 실천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한국 디자인이 실천이라는 한 바퀴로만 굴러왔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디자인은 실천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한국 디자인은 실천은 넘치나 담론은 빈곤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는 디자인 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없다. 디자인 실천과 담론은 상호작용하여야 한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실천 없는 담론은 공허하고 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 한국 디자인은 이제 실천과 담론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사 연구는 디자인 담론의 기초로서 한국 디자인의 층위를 재구조화하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처럼 일기 시작한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9 Victor Margolin (ed.), *Design Discourse: History, Theory, Criticism*, (Chicago and London: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9)

제대로 추동되고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디자인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디자인계의 보존적 욕망에 압도되어 정당화 기능에만 치우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역사의 정당화 기능에 못지않게 '성찰'의 기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찰을 통해서 비로소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디자인사 연구는 한국 디자인의 역사적 궤적을 돌아보는 가운데 건강한 디자인 공동체의 재생산과 함께 디자인 실천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㉞

### 참고문헌

- 최범, (2018), 『최범의 서양 디자인사』, 안그래픽스
- Haruhiko Fujita & Christina Guth (ed.), (2020), *Encyclopedia of East Asian Design*,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Plc
- Victor Margolin (ed.), (1989), *Design Discourse: History, Theory, Criticism*, Chicago and London: The Univ. of Chicago Press
- Victor Margolin (ed.), (2015), *World History of Design*, Chicago: Bloomsbury USA Academic
- 최범, (2004),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전제」, 『디자인학 연구』, Vol.17 No.4, 한국디자인학회
- 김민수, (1997), 「문화적 정체성을 향하여」, 《월간 디자인네트》 11월호, 디자인네트

- 박암중, (1995), 「한국 디자인사 100년을 시작하며」, 《월간 디자인》 8월호, 디자인하우스
- 최범, (1995), 「디자인과 역사의식」, 《월간 디자인》 8월호, 디자인하우스
- 최범, (2014), 「왜, 한국 디자인사는 없는가」, 《월간 디자인》 4월호, 디자인하우스
- 안병직 외, (1998), 「언어로의 전환과 새로운 지성사」,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